

- * 지난주 강단제목 : 불순종한 요나와 참복음과 참전도, 참선교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 (은 1:1-3, 눅 11:29-32)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 | |
|--------------|---|
| ★ 입례송 | 오르간 |
| ★ 예배의 부름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 ★ 응답송 | 찬양대 |
| ★ 예배선언 |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 ★ 경배의 찬양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
| ★ 고백과 용사의 말씀 | 설교자 |
| ★ 주기도 |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 ★ 성서교독 | 20. 시편 33편 / 인도자와 회중 |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물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1-8)

- | | |
|----------|--|
| 찬송 |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 다같이 |
| 중보의 기도 | (1부) 김순호 장로 (2부) 이명 장로 |
| 성경봉독 | 이사야 43:18-19(구약 1021쪽), 고린도후서 3:3(신약 288쪽) / 인도자 |
| 찬양 | (1부) 일을 행하는 여호와 / 시온찬양대 (영상)
(2부) 언약 안에 사는 삶 / 시온찬양대 (현장) |
| 말씀의 선포 |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거듭난 고린도교회
복음으로 여는 고린도후서 - / 설교자 |
| 봉헌 |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
| 교회소식 | 설교자 |
| ★ 결단의 찬송 | 언약의 사람아(2절) / 다같이 |

언약의 사람아 애굽과 광야를 맘껏 누려라 요단 앞에서 감사 누려라
 언약의 사람아 하나님 언약이 너의 것이라 하나님 기념비 보게 되리라
 여리고 앞에서 그들을 보리라 주인 떠난 그들을 보게 되리라
 그날은 정녕 찾아오리라 성취되리라 언약의 날
 능력의 시간표는 그날에, 그날 오리라 사명과 꿈은 이루어지리라

- | | |
|-------------|--------|
| ★ 파송의 말씀 | 설교자 |
| ★ 봉헌기도 · 축도 | 정윤돈 목사 |

다음 주 기도 : (1부) 김영진 장로 (2부) 유경형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사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랩넌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1랩넌트실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3:3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정은숙 집사 (오후) 김승훈 집사
인도, 설교	(오전) 김양순 목사 (오후) 박범서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김갑례 집사 (오후) 박희영 권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지역보고	6지역
설교	이현규 목사

다음 주 지역보고 : 7지역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화) 이현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목) 박범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2026 참사랑교회의 응답

참사랑교회

오직성경 오직복음 오직예수

(이사야 34:16, 디모데후서 3:16-17)

교회소식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1. 큰 글씨로 강단메시지 녹취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복음요절 암송과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해 300명엽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층과 5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3. 예배시간과 헌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 2) 수일오전예배, 수요일오후예배, 금요일야기도회 / 1층 비전홀
 -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모방에 올라갑니다.
 -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 (5)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랩넨트부서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 5)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의 시간을 정해서서 줌이나 전화통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심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헌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 헌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관 및 교우소식

1.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돈 담임목사 : 6.16~17 미주대학전도집회 - 미국 시카고)
2. 군선교사로 파송받는 랩넨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근 랩넨트 6월 15일 입대)
3.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후보 14명에 있습니다.)
4.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김춘례 권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1. 금토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랩넨트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채팅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 2) 트릭키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 3)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걸 집사 010-8760-0756)
 - 4)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 5) 수목캘리그래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 6)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병 장로 010-2222-7624)
 - 7)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8)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랩넨트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 9) 취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담당 : 조수정 집사 010-3777-8315)
 - 10) 복음영어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 11) 드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12) 피아노&기조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 13) WIO스마트팜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기,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팀을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조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걸 목사 010-8206-2024)
 -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찬양대실, 요일 협의.
 -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조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취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화권 장로 010-2334-6713)
 - 1) 강사 : 김화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찬양대실.
 -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전거 타는 방법 교육 및 안전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1) 대상 : 초, 중, 고생徒. 2) 장소 : 울림파크원(평화의 광장). 3) 기간 : 모집 후 결정.
 - 4) 교육기관 : "스포츠클러스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 강인규)
8. 자격증 상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원경력평생교육원 (문의 : 최영경 팀장 010-6777-8692)

교회소식

■ 훈련 및 집회소식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화(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 중적자대학원 종강 강의가 오늘 오후 6시에 3층 제2랩넨트실에서 있습니다.
- 미주대학전도집회가 '세계 살릴 실제 땅대를 만들어라(행18:1-4)'를 주제로, 6월 16일(화)부터 17일(수)까지 미국 시카고성구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 중독예방사명자대회가 '전도 이는 자를 전 세계에서 찾아야(마28:16-20)'를 주제로 6월 26일(금)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 237화요제자훈련이 6월 30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 제29차 세계랩넨트대회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창41:38)'를 주제로 열립니다.
 - 세계랩넨트대회는 8월 4일(화)부터 8월 7일(금)까지 대구 EXCO에서 열립니다.
 - 1차 등록기간은 5월 23일(토)부터 6월 22일(월)까지, 1차 입금마감은 6월 25일(목)까지이며, 2차 등록기간은 6월 30일(화)부터 7월 14일(화)까지, 2차 입금마감은 7월 15일(수)까지입니다.
 - ① 지정된 기간 내 등록과 입금 모두 완료시 최종확정이 됩니다.
 - ② 숙박신청 여부에 따라 등록금액이 상이하며, 분납도 가능합니다. (20만원 우선 입금시 좌석 배정)
 - ③ 온라인 등록기간에 따라 등록현금이 다르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등록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대상)	내용	등록현금		
		1차등록	2차등록	당일등록
A. 랩넨트 (2013년생~2001년생)	숙소, 식사, 차량 신청	44만 원	45만 원	46만 원
	숙소, 차량 미신청 * 식사 필수제공(특별 진행)	31만 원	32만 원	33만 원
	숙소, 식사, 차량 제공없음	24만 원	25만 원	26만 원
B. 일반 (2000년생 이상)	* 식사 신청시 추가 7만 원	31만 원	32만 원	33만 원
	C (동반자녀) 보호자동반 필수	2014년~ 2022년생 2023년 이후 출생	식사 제공 해외 랩넨트 식사 및 좌석 제공 없음	14만 원 27만 원 (숙소+식사) 등록현금 없음
	장애인(1,2,3급 중증) 복지카드 or 등록증	등록현금 50% 할인		

6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0주차	제44회 전국 교역자 부부수양회(1~3, 평창), 랩넨트사역자 및 교사강습회(2~3, 덕평 RUTC)
1주차	총회목사고시(8), 237세가족현장사역자훈련(9)
2주차	미주대학전도집회(16~17, 시카고)
3주차	목회사모원(24~25, 여름학기), 중독예방사명자대회(26), 랩넨트데이(27)
4주차	랩넨트부서연합예배(28) / 237화요제자훈련(30, 덕평 RUTC)

6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현금위원	(위원장) 신승훈 (위원) 김금남 라종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은 이영경
성찬위원	(5층)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6층) 유경형 주재진
안내위원	(위원장) 라종화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기도제목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 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2026년도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펍센터, 노인정 등)
-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 3) 예체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악기 등)
 -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목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대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현당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정아 유경형-리종화 주재진-권혜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창희 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중복(한명희) 박지영
300인 용사 (132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운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지성 송영희 허경원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영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훈 서희석 나향남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아용근 김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완 박희영 정수환 최송화 박준민 황인선 주철우 정선희 권은희 민경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해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양호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현 임경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철규 현영희 장영호 여준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배명자 신옥희 김태운 이남현 오영숙 정향만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중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현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남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서원 박서진 이현주 최영애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정년영 양은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박범사-김진아 심한결-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리종화 주재찬-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이은숙 여동훈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우 정세완 박희영 신승훈 박영인 김 현 김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유승범 주은경 김순호 김영진-최혜숙 이 명 이명재 구윤진 강현자 장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재자 이정윤 강공이 이세호 김순자 임영순 김일호 이은희 이순덕 김영순 박인자 최재경 호민수 김나경 김용관-김정순 김재귀-장소녀 김춘례 최송화 김주영 조성균-김갑례 정향란 이영순 이순근 남호정 유제숙 전은정 전 진 임소순 심성하 배교은 나경철-신현식 정민호-이서은 김정연 윤순옥 현영화 박숙자 한경숙 이연균 임혜연 정예승 김지후-이현주 조부영 오이라 김태운 임혜미 이민형 양은숙 조현지 김승훈-김혜인 최일숙 최영국-김윤지 이진형-최가은 박난순 유승환-최이현 아이연 박찬열 안도근 임경미 손혜옥 이상구-이정미 김소라 윤태자 여 명 김현성-이미화 김명철 장유미 이민수-김숙희 유영석 전주율 이효숙 고진순 김창균-임예진 채송아 안선희 방주은 윤차현 정예건 안예근 안나근 배준서 권은희 무명15		
십 일 조	정윤돈 박범사-김진아 심한결-정지혜 이현규-김수진 김원일-전인숙 정은숙 김경애 문갈순 윤순옥 박점순 임소순 오신자 배형석-박인자 김용관-김정순 김재귀-장소녀 유충현-강공이 이 명 신승훈-박영인 이상구-이정미 호민수 최명홍 임혜연 이 석 홍경아 여 명 손상현 송영희 배준서 권은희		
감사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송화 윤성희 박진수 박학규 김용관-김정순 김경애 김재귀-장소녀 정민호-이서은 김지후-이현주 홍경아 김태울 조재형 조연희 박영인 방주은 김지수 황혜주 최신혜 이은숙 유경형-리종화 박동영-최진희		
심방헌금	지복순-임상식-임민재-지성순 이상구-이정미		
차량헌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심한결-정지혜 김용관-김정순 김재귀-장소녀 오신자 임소순 이은희 임영순 유승범 주은경 정수환 방주은 아이연 조현지 안도근 김승훈-김혜인 김순호 박동영-최진희		
자유센터	정민호-이서은 방주은 (*2026년도 총계 331,000원)	(*2025년도 총계 5,009,000원	*지출총계 500,000원)
헌당헌금	정윤돈 최신영 전정아 심한결-정지혜 오신자 임영순 배형석-박인자 임소순 김재귀-장소녀 김용관-김정순 박지영 유승범 주은경 조부영 조현지 방주은 김승훈-김혜인 정수환 김순호 박동영-최진희		
장학헌금	유승범 주은경 방주은 김승훈-김혜인 김창균-임예진 박동영-최진희		
어학연수	정수환		
RUTC헌금	이현규-김수진 강공이 방주은 임혜미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2026. 6. 4. ~ 2026. 6. 9.)

헌당헌금 (2026년도 합계)	72,051,000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46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6,851,000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1,437,000원
헌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51,000,000엔 (한화 4,284,500,000원 / 100엔환율=95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헌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박동영 최진희 박서운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는 박점순 이신순 <u>최일숙</u>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신주 최해나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 이미자	③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재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이진수 정동주 정동훈 이은순A 김흥기 문길순 김갑례 임상식 지복순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④방이2 (최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도연 백은지B 윤소현A 윤대현 윤차현 박현우 김잠A 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운우
	⑤천호 (유경형)	리종화	홍경아	유경형 리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 김금남	⑥잠실 (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해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⑦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형B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 (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A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강정자 최철규 한영화 최종인 손병순 김준석 윤수연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서울 경기	②박범서 목사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채 고정호 고정협 스톱모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현 손보국 이정택 이은순B 이기원
	⑤심한결 목사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 예 교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이은옥 조유연 조용연 이재운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도상철 채희은 도성우 김경현 강소영 김유은B 김소는 김석재 김정길 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⑥이현규 목사			윤지은 최명자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늘 박하룬 안진성 문경화 안서운 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주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돌봉 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 용 이유희 최지원 조현우 이채원 이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민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는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을 최하린 김혜수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도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심한결 목사 | 총무: 양경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이현규 목사 | 총무: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4지역/ 김계자	㉑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경미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경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이은숙 김춘례 임수미
	㉒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주재진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양순옥 임선규 김태운 김근녀 이종남 김영순
	㉓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㉔올림픽1 (김현)	장길순	이영순	유운식 장길순 유효진 유운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㉕올림픽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허경열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㉖올림픽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엽재 양경심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㉗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김순호A 안도근 만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경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일호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희 권혁복
	㉘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㉙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배승찬 이 명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혜원A 김재승 윤순옥 구자성 송영희 이명재 구윤진 이미화 김자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을 백하을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권 김승훈 김혜인 김도연
	㉚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김영진 최혜숙 김시연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를 순하늘 오신자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김정열 김운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김순호B 이 하 안지용 안수현
	㉛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오국환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제숙 고진순 방주는 정문철 이선아 정유호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㉜문장 장지 (라종화)	최신혜	이가에	송길호 최신혜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에 신현옥 신지유 장영균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니주희 니종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용 김장남 유정빈
	㉝가락 (정영규)	백소정	정선희	여동훈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연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는 노은현 손상현 이균재 이순근 이수산나 허가이 임혜미 송창범
9지역/ 박영인	㉞거여 마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신승훈 박영인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이 석 김재우 유충현 강공이 유승호 전주을
	㉟강동 (신승훈)	정향란	김숙희	심한결 정지혜 심주인 심지연 정향란 이민수 김숙희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함조식 소속현 함재이 오인태 김자영B 오하림 오하운 김선옥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정승우

불순종한 요나와 참복음과 참전도, 참선교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

—복음으로 여는 요나서—

요나 1:1-3, 누가복음 11:29-32

들어가는 말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무리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살아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곧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서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구약에서 부활을 가장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생각해보면 불가능해 보인다. 큰 고래라 할지라도 인간을 삼키는 구조가 아니며, 그 안에서 산소를 공급받아 3일을 버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과거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에서 큰 배가 진북되었을 때 바다에 형성된 에어포켓(공기층) 덕분에 사람들이 생존했던 장면이나, 필리핀에서 작은 배가 뒤집혔을 때 빈 공간의 공기로 이들을 살아남았던 실제 사건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어쩌면 멸종된 거대한 포유동물이거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머금는 특별한 생물이었음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으로 요나를 그 뱃속에서 생존하게 하셨다는 점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절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평강히 복음적인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3일, 24시간 내내 그 안에서 계속 기도하게 하신 것이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상황을 지옥 같다고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청년들이 기도가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상황으로 몰아가실 것이다. 평강히 힘든 일을 주시면 자절로 기도가 될 것이니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미리 기도하라는 것이다. 미리 앞장서서 기도하면 쓸데없는 고난을 겪지 않고 계속 축복만 받게 된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 다니엘, 다윗이다. 요셉과 다니엘은 노예와 포로로 끌려갔어도 갈등하구나 힘들어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램트시절부터 평소에 정기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 역시 양을 치는 목동시절부터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누렸다.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를 누리는 램트들이 받는 축복은 완전히 다르다. 나 역시 하나님 앞에 꾸준한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구나,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구나"하는 것을 참 많이 느꼈다. 세상 사람들이 워낙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항상 이러한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다. 요나서를 통해 깨닫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낫을 피해서 절대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면 절대 도망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바 된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주거나 질병을 허락하시더라도 끝까지 기도하게 만드신다. 우리는 흔히 문제, 고통, 경제적 어려움, 자녀문제 등을 없애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없애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네 기도를 듣고 싶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경적이고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와는 전혀 다르다.

이번에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나 스스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설교제목부터 내가 은혜를 받은 내용을 담아 정하게 되었다. 요나서를 보니 "진짜 복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구나"를 깨달았다. 요나는 성격도 나쁘고, 말썽도 듣지 않으며, 불신앙으로 도망 다니고, 전도와 선교도 전혀 모르는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그런 요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어서 끝까지 느느웨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를 붙잡아 사용하셨다.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칼빈과 루터 신학의 핵심인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굳게 믿기 바란다. 어제 오랜만에 한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고, "정선일"이라는 친구가 며칠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유가족과 통화하며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녀들이 모두 훌륭하게 잘 성장했다고 한다. 선일이는 마지막 3년 동안 암투병을 했는데, 그 기간에 한 가족이 기도를 참 많이 했다고 한다. 특히 사랑하는 딸이 직장을 5개월이나 쉬면서 아빠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가족들과 넘치는 사랑을 나누다가 하나님 품으로 평안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아,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누구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부터 생사회복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진히 주관하신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중요한 전환점마다 정작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은혜뿐이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굳게 붙잡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온전히 믿기를 바란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굳게 붙들고 계시는가?"이다.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참사랑교회를 세우셨고, 나 때문에 부모님을 주셨으며, 나 때문에 교제할 만간의 축복도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고, 총회와 협회도 주셨으며,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주셨다. 내가 이 땅에 어찌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지 결코 부록같은 존재가 아님을 굳게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왕이나 왕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황제마저 살

러면 '영적 황제'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언약과 자부심,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세상의 갑부나 왕족과 비교할 수 없는 우주만물을 순식간에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 바란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완벽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위해 그 길을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참사랑교회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이상해진다. 세상에 70억, 80억의 수많은 인구가 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나를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인다"는 생각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교만이 아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마귀에게 속지 않고, 어떠한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절저한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소 부족하고 넘어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나의 본래 성향은 그렇지 않다. 매사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며, 이른바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대장'처럼 철저히 하고 완벽하게 행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번에 요나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아, 정말로 우리가 하는 것이 전혀 아니구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우리는 요나처럼 참으로 부족하고, 특히면 불신앙에 빠지며, 성격도 모나고 연약하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루터와 칼빈의 신학이며, 우리 믿음의 위대한 유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핵심이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교과서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믿음의 굳건한 기준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 명백한 진리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진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 두신 사람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에 히로시마에 가서 그 시의원을 만나자마자 앞으로의 진도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졌다. "아, 한국에서 우리 동생과 함께 국회의원을 데리고 와서 저 시의원과의 연결하여 문화 공연장을 빌리고 K-pop 공연도 하며 선교의 문을 열어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이 주는 응답이다. 이 거대한 일들을 과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늘 불신앙에 빠지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남과 상황을 미리 완벽하게 예비해 두고 계심을 굳게 믿기 바란다. 요나는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 풍파도 예비해 두셨고 큰 물고기도 예비해 두셨다. 요나가 음바로 내려가 배 밀창으로 숨어들었을 때,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도망가기 딱 좋은 배가 한 척 있었다. 우리는 종종 돈을 쓰면서까지 나쁜 짓을 하고 불신앙의 영토를 넓혀 간다. 그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다. 돈을 써가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다. 당시 다시스로 가는 배삯은 엄청나게 비쌌다. 그 큰돈을 들여서라도 도망을 친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는 돈을 아까워하지만 정작 죄를 짓고 중독에 빠지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는 카드를 팍팍 긁으며 돈을 아주 잘 쓴다.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한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실 믿기 바란다. 배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네피림(우상숭배)의 풍습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정확히 뽑혔다. 사람들이 "네가 대체 누구기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느냐?"라고 묻자, 요나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런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자복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고,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훗날 요나서 2장을 보면 그가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마침내 밖으로 나오게 된다. 요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참된 복음과 진도, 그리고 선교가 무엇인지 영장한 영적 비밀을 알려 준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영적인 원리를 깊이 깨달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서론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이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한다. 우리는 마땅히 성령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악령의 인도를 받을 때가 많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음란하고 나쁜 길로 빠지며 불신앙에 사로잡힌다. 평화와 사랑을 구하기보다 늘 다투고 분열하는 길로 간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실존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자녀요, 나의 선지자라"고 칭해 주신다. 비록 성령충만하지 못할지라도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 성령충만함조차도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격도 모나고 도망치기 바빴던 부족한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성경본문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아맛대의 아들 요나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맛대라는 이름의 뜻은 '신실함', '진실함', 곧 '믿음이 굳건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후대를 위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은 이토록 중요하다. 비록 아맛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 몰라도 그 신실한 기도의 배경 덕분에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끝까지 사용하신 것이다. 우리 역시 믿음의 후대들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고 기도하는 부모세대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요나의 고향은 갈릴리 지방 '가드헤벨'이었다. 가드헤벨은 훗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나사렛과 아주 가까운 곳이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탄생지가 되었듯, 성경의 이러한 지리적 배경들은 모두 우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결국 요나라는 인물과 그의 여정 역시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인 것이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라고 부르셨다. 여기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즉, 구약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처럼, 신약의 베드로 역시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였던 것이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 혹은 '작은 돌을 의미하는데, 이 굳건한 신앙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짐을 생각할 때, 이 모든 영적인 이름과 족보, 지리적 배경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절저히 상징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1. 요나서의 전체 내용과 영적 의미

요나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장마다 요나의 여정을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비록 짧은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평강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다.

1) 요나서 1장 : 불순종과 도망 하나님은 요나에게 앗수르의 수도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행을 꾸짖으라고 명령하신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려 한다. 니느웨가 있는 곳과 정반대인 스페인 쪽으로, 당시 세계의 끝이라 여겨졌던 곳까지 도망가려 했던 것이다. 우리 역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낫을 피해

도망치려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 우리를 감찰하신다. 배를 타고 도망치던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제비뽑기를 통해 결국 바다에 던져진다. 요나가 배 밑창으로 숨고 바다 깊은 곳으로 떨어졌듯,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은 계속해서 영적 밀바다, 즉 캄캄한 혼돈과 흑암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 바닷에 빠진 요나를 하나님께 예배하신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된다. 이 부분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진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2) 요나서 2장 : 극한의 고난 속에서 기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다. 요나서 2장 2절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한다. '스올'은 지옥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문제, 자녀문제, 경제문제, 가정문제, 이성문제 등 스올과 같은 극심한 고난에 빠질 때를 허락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콜링, 부름이다. 평안할 때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요나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비로소 감사하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은2:9)"라고 고백한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 부르짖기 전에 평안할 때 미리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고난받기 전 스올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 감사하길 바란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기를 축원한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길 바란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3) 요나서 3장 : 요나의 마지막 순종과 니느웨의 회개 하나님은 2장에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하여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다. 그 이후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신다.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만 그의 진도는 아주 불성실했다. 3일 길을 걸어야 할 만큼 거대한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대충 다니며 외쳤다.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은3:4)"고 짧고 심판적인 중, 왜기문자로 기록된 당시 민중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의 없이 진도캠프를 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성실한 외침을 듣고 니느웨 왕부터 온 백성이 급속히며 철저히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4) 요나서 4장 :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요나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보고 도리어 하나님께 매우 화를 낸다. 원수같은 민족이 구원받은 것을 보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은4:3)"고 불평한다. 하나님은 뜨거운 태양 아래 자라난 박영쿨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치신다. 하루 만에 자랐다 시든 박영쿨도 그리 아끼거늘 죄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영혼이 있는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다. 요나는 끝내 대답 없이 요나서는 마무리된다. 요나는 진정 회개하지 않았음에, 놀랍게도 2014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IS가 이라크 모술(고대 니느웨)에 있던 요나의 기념 조상을 폭파했다. 그런데 그 파괴된 잔해 지하를 발굴하던 중, 왜기문자로 기록된 당시 왕의 글자와 함께 실제 요나의 무덤 유적이 발견되었다. 이는 요나가 튼튼거리고 불순종하는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원수의 땅 니느웨에 남아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불신앙과 연약함까지도 덮으시고 끝까지 진도와 선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2. 니느웨로 가는 길과 다시스로 가는 길

1) 다시스로 가는 길 : 불순종과 타락의 길 다시스는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의 정반대 쪽이다. 다시스로 가는 것은 창세기 3장으로 되돌아가는 불순종의 길을 의미한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단형사님,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계속해서 창세기 3장의 불순종과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항상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본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다시스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뜻과 생각대로 선택한 인간적인 길이다. 이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전통과 자기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비복음적인 길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성격, 자신의 민족, 자신의 전통을 더 아꼈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중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무속과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영혼은 흑암, 혼돈, 공허에 갇혀 있다. 성령의 상태가 결코 아니다. 이것이 바로 네피림의 모습이며, 안타깝게도 전 세계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참된 행복이 없고 영혼이 공허하니가 마약이나 다른 중독에 빠지며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다시스로 가는 길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쌓는 길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직 자신의 성공, 고만, 돈, 자기 이익, 명예, 권력, 지식을 위해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다. 잇수르의 수도인 가두지 평안할 수가 없다. 무속과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영혼은 흑암, 혼돈, 공허에 갇혀 있다. 성령의 상태가 결코 아니다. 이것이 바로 네피림의 모습이며, 안타깝게도 전 세계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참된 행복이 없고 영혼이 공허하니가 마약이나 다른 중독에 빠지며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다시스로 가는 길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쌓는 길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직 자신의 성공, 고만, 돈, 자기 이익, 명예, 권력, 지식을 위해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다. 잇수르의 수도인 가두지 평안할 수가 없다. 무속과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영혼은 흑암, 혼돈, 공허에 갇혀 있다. 성령의 상태가 결코 아니다. 이것이 바로 네피림의 모습이며, 안타깝게도 전 세계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참된 행복이 없고 영혼이 공허하니가 마약이나 다른 중독에 빠지며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다시스로 가는 길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쌓는 길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직 자신의 성공, 고만, 돈, 자기 이익, 명예, 권력, 지식을 위해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다. 잇수르의 수도인 가두지 평안할 수가 없다. 무속과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영혼은 흑암, 혼돈, 공허에 갇혀 있다. 성령의 상태가 결코 아니다. 이것이 바로 네피림의 모습이며, 안타깝게도 전 세계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참된 행복이 없고 영혼이 공허하니가 마약이나 다른 중독에 빠지며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지난주 주일나잇에 메시지

전 그 교단의 최초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어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입으로는 선교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이웃 나라를 미워하고 욕한다. 참된 선교적 차원의 마인드가 아니면 이런 민족적 감정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비록 과거의 역사 때문에 그들이 싫고 원수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감정을 뛰어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알팍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선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 주고 계신다.

2) 니느웨로 가는 길 : 복음과 순종의 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니느웨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고도 요나는 나오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한다. 요나서 2장에서는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기도했지만 3장에 가서는 성의없이 대충 진도만 다. 그러고는 4장에서 햇빛을 가려주던 박영굴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를 낸다. 은혜를 체험하고도 진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것이 고난을 피한 인간의 알팍한 모습이다.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조금 살 만해지면 또 다시 딴 짓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 바란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니느웨로 가는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 사도행전 1장 1절의 길이다. 즉 오직 그리스도가 가진 십자가의 길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셨다. 그러하여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복음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한다. 둘째, 니느웨로 가는 길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길이다. 역지로서라도 요나가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대한 영적인 정복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237개 나라 치유서밋의 응답을 받은 곳이라 할 수 있다. 우리도 요나처럼 비록 역지로 갈지라도 현장에 가기만 하면 정복의 응답을 받게 된다.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숨겨두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흠어진 자, 파수꾼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홍콩캠프나 일본 히로시마캠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히로시마 역에 새로 생긴 거대한 트램정거장에 갔을 때, 그곳에서 길을 안내하는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 어르신 세 분을 만났다. 놀랍게도 그분들 모두가 히로시마 참사당교회 성도들이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지역의 핵심 포인트에 우리 성도들을 영적인 땅대와 파수꾼으로 세워두시고 만민의 축복을 주신다. 셋째, 니느웨로 가는 길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세계복음화와 다민족복음화의 길이다. TCK(Third Culture Kid, 제3문화 아이), CCK(Cross Culture Kid, 교차 문화 아이), NCK(No Culture Kid) 등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성령이 말하는 '땅끝은 어디인가? 바로 온갖 중독에 빠진 현장, 마약과 경제문제로 무너져가는 유럽과 미국이다. 길으로는 선진국 같지만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영적으로 깊이 병들어 망해가고 있다. 우리는 니느웨처럼 전쟁을 일으키고 멸망을 향해 가는 절대불가능한 현장으로 가야 한다. 말을 유창하게 많이 할 필요도 없다. 오직 바른 복음을 조금만 전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이번 캠프에 가도 나는 응답을 못 받을 거야"라는 불신앙의 확신을 품고 간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기대하며 해외캠프에 임하는지,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방관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응답을 받기를 축원한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악한 사람들도 회개만하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은 비록 요나와 같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절대불가능한 현장에서도 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의 삶의 현장과 237개 나라, 5천 종족의 빈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참사당교회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참사당 RUTC현황 (예제능체임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릭키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목캘리그래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랩먼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분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아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결 010-8206-2024	협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원로목사	최정용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목사(전도팀)	김양순 010-8328-0132		
전도인	최진희 이미지 김급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라종화 김현 여준석 김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지 김급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군재 전민식 장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운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승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아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랩넌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랩넌트실		
	오후 2:00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금요심야기도회	수 오후 7:30						
금요심야기도회	금 오후 8:00	영상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영상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주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랩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랩넌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참사랑교회	

국내외선교지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교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창국선교사(러시아)
 ⑤ 황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화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해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군파송자

[육군] 송영민 나중훈 이주형

해외파송자 (26)

[미국] 최형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교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교회 역사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 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윤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58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리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램넳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